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애착 불안정의 매개효과

이 우 경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최 은 실[†]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과의 관계에서 회피형 애착유형과 불안형 애착유형으로 구분되는 애착 불안정 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있는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여자 대학생 504명이었으며, 측정 도구로는 외상 사건 질문지(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친밀 관계 경험 질문지(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ECR-R),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 외상은 경계선 성격, 회피형 애착유형, 불안형 애착유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유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피형 애착유형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불안형 애착유형 역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 사건이 경계선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회피형 애착유형과 불안형 애착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외상이 주요 대상과의 불안형 또는 회피형 애착유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경계선 성격특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 회피형 애착유형, 불안형 애착유형, 경계선 성격특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은실 /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Tel : 053-600-5704 / Fax : 053-600-5259 / E-mail : ces726@hanmail.net

성격장애는 한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을 말하며, 이런 양식은 매우 경직되어 있고 여러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중 경계선 성격장애는(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하 BPD) 충동 통제의 어려움, 정서 조절, 대인관계상의 문제, 불안정한 자아상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성격장애이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미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DSM-IV)에 수록된 다른 어떤 성격장애들보다 유병률이 높고 이 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들의 약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가족, 친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는 장애이다(Weiss et al., 1996). 경계선 성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임상 집단에서는 15~2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6%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Grant et al., 2008).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신과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사이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성격장애로 점차로 비임상 집단에서도 높은 비율로 발병하고 있다(Korzekwa, Dell, Links, Thabane, & Webb, 2008).

경계선 성격병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병인론적 특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중에서 아동기 외상은 경계선 성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환자들은 정상 통제집단보다 어린 시

절 아동기 외상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lgeland & Torgerson, 2004; Sansone, Songer, & Miller, 2005). Bandelow 등 (2003)은 약 96%의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정상 통제 집단의 38.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임상 집단 외에도 지역 사회 정상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Johnson et al., 2001)에서도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외상 사건으로는 무시(Helgeland & Torgerson, 2004), 성적인 학대 및 신체적인 학대(Zanarini et al., 1997) 정서적 및 언어적 학대(Johnson et al., 2001)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중에서 성적인 학대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Gunderson & Sabo, 1993).

아동기 외상 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매개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여기에는 낮은 자존감(Finzi-Dottan & Karu, 2006), 인지적 왜곡(Browne & Winkelman, 2007; Hankin, 2006), 수치심(Stuewig & McCloskey, 2005), 거절민감성(Maciejewski & Mazure, 2006), 성인 애착양식(Browne & Winkelman, 2007; Hankin, 2006), 대인관계 문제(Whiffen, Thompson, & Aube, 2000), 불우한 가정환경(Bradley, Jenci, & Westen, 2005) 등이 있다. 이중에서 아동기 외상과 가장 밀접한 개념이 애착이다. 아동기 외상의 좋지 못한 영향중의 하나는 주요 양육자와의 안정 애착을 방해한다는 것이다(Baer & Martinez, 2006).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아동기 외상 유병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아동기 외상과 애착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Briere(1996)의 자기 외상(self-trauma) 모델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은 이후의 발달, 특히 애착체계를 와해시킨다. 애착체계는 위협 반응을 조절해주고 일상적인 행동체계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는 주요 행위 체계들 중의 하나인데, 이 애착체계가 손상되면 탐색, 학습, 정서조절, 대인관계 기능 등 발달의 중요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Lyons-Ruth, 2003). 이와 같은 초기 애착 불안정은 성인기에 들어와서 기분장애, 물질 사용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 병리에 취약하게 만든다(Grant et al., 2008).

애착 연구는 경계선 성격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변 대상으로부터 친밀감과 인정, 반응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애착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성인면접 질문지(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를 사용하여 경계선 성격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Barone, 2003; Barone, Borellini, Madeddu, & Maffei, 2000; Diamond, Stovall-McClough, Clarkin, & Levy, 2003; Levy, 2005; Lyons-Ruth, Melnick, Patrick, & Hobson, 2007; Patrick, Hobson, Castle, Howard, & Maughan, 1994; Rosenstein & Horowitz, 1996; Stalker & Davies, 1995), 50%에서 80%의 피험자들이 미해결(unresolved) 혹은 몰두형(preoccupied)의 애착유형에 속한다.

불안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성과 충동성이 높아 경계선 성격특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Barone, Fossati, & Guiducci, 2011)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이 동반된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가장 많은 애착유형은 밀착-몰두형(60%)과 미해결(47.5%) 유형이었다.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은 두려움 애착, 즉 애착 불안 및 관계적 회피와 같은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맥락에서 애착체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버림받는 것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갈등적이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패턴을 보인다(Fonagy & Luyten, 2009; Gunderson & Lyons-Ruth, 2008).

이와 같은 애착체계의 과잉활성화(hyperactivity)는 초기 아동기 외상경험과 연결되며 경계선 환자들의 정신화(mentalization) 손상과도 연결된다(Bateman & Fonagy, 2004; Bateman & Fonagy 200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초기 외상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애착체계의 과잉활성화가 경계선 성격병리를 연결해주는 경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성격에 대한 차원 모델을 적용하여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련성을 밝힌 전형적인 연구들에서도 아동기 불안정 애착이 청소년기의 경계선 성격병리를 예측해주는 선행 요인(precursor)으로 보고하고 있다(Crick, Murray-Close, & Woods, 2005).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장애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애착 불안정성과도 상관이 높다. 또한 애착의 문제는 불안정한 대인관계 양상과 같은 경계선 성격병리의 주요 임상 특징과 관련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애착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상정하고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애착 불안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매개 효과 연구를 통해 아동기 외상 경험이 애착 불안정성을 통해 경계선 성격에 영향을 미

치는 발생적 기제를 알아볼 수 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이 어떤 과정 변인을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외상 경험이 있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아동기 애착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도 하고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역동적으로 바뀌기도 한다(Fraley, 2002). 대부분의 애착 연구들이 애착유형을 분명한 범주로 나누고 있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애착 유형을 범주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개념이나 통계적 검증력, 공통 변량, 측정 정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Fraley & Waller, 1998). 범주형 애착 유형 측정치들에서는 짧은 시간 변화에도 애착 범주가 약 30% 정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애착 범주 모델에 따른 측정 오차를 줄이고자 차원 모델을 적용하여 잠재 변수를 문항 반응 행동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성인 애착 척도가 ECR-R(revised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이다. ECR-R은 애착 구성 개념의 기저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불안, 회피라는 두 가지 잠재 차원(Brennan et al., 1998; Fraley, Waller, & Brennan, 2000)을 측정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사용하여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고 기존에 개발된 성인 애착 척도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롭게 애착 특성(trait attachment)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bley & Liu, 2004).

한편 입원한 환자들은 경계선 성격 특성을 보이는 사례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입원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훨씬 병리가 심각하고 축 1에 우울증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Lenzenweger, Lane, Loranger, & Kessler, 2007). 일반 인구 집단에서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병리가 뚜렷하지 않거나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rull, 1995). 국내에서도 홍상황과 김영환(1998)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완전한 증상으로 발병하기 전까지 경계 범위에 해당되는 우울증과 정신 병리를 나타낸다고 보고하면서 이들을 임상 집단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 군으로 보고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경계선 성격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2~4배 정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점에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축적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 성인 여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초기 아동기 외상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애착 불안정성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애착 불안정성은 애착 개념이 불안, 회피라는 두 가지 잠재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는 ECR-R에 따라 불안형과 회피형 두 가지로 나누었다. 애착 유형과 경계선 성격 특성의 관련성을 살펴본 문헌에 따르면 불안형 및 몰두형 애착은 일관성 있게 경계선 성격 병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회피형 애착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나 나오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불안정 애착이라는 잠재 변

인에 대한 두 개의 측정변인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이라는 각각의 잠재 차원을 측정 변수로 사용하여 별도의 매개 분석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아동기 외상은 경계선 성격특성과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은 경계선 성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과 같은 애착 불안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서울 소재 4년제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여자 대학생으로 여학생에 국한하여 표집한 이유는 경계선 성격장애는 흔히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장애로 알려져 있고 심리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 중 대부분(97%)이 성인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총 524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504명의 자료를 연구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연령은 30-40대가 357명(7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39.43이었고 표준편차는 8.81세였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응답자 중 31명(6.2%)이 1학년, 123명(24.4%)이 2학년 246명(48.8%)이 3학년, 104명(20.6%)이 4학년으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 연한은 13.83년이었고 표준편

차는 .78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외상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아동기 외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Kolk (1996)가 개발한 것으로 고나래(2008)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하였고 전체 43문항의 10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은 ‘유능감’, ‘안전감’, ‘방임’,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분리 경험’, ‘가족 내 비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가정 폭력 목격’, ‘다른 외상 경험’, ‘술과 약물남용의 노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세 가지 척도를 분석하였다. 만 18세 이전에 부모나 가족 구성원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외상 경험이 없었다면 0점, 자주 있다면 3점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는 0-45점으로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고나래(2008)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0이었고 하위 척도인 신체적 학대는 .74, 성적 학대는 .76,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6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하위 척도인 신체적 학대는 .77, 성적 학대는 .78,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78로 나타나서 원 척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상심리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도 점수를 부가한 점과 참여자가 모두 여자로서 표집이 동질적이었던 점이 신뢰도를 높이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친밀 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ECR-R).

ECR-R은 성인 애착유형 검사도구로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한 뒤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수정하여 개정하였으며, 이것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불안형과 회피형이 있으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형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7점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Morey(1991)가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객관적 자기보고형 설문지이며 하위 요인으로는 정서적 불안정성(BOR-A), 정체감 문제(BOR-I), 부정적 대인관계(BOR-N), 자기 손상(BOR-S)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0에서 3까지 (0=전혀 그렇지 않다, 1=약간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 점수는 각 문항의 척도 값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 점수 범위는 0점-72점으로 국내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원점수가 39점 이상인 집단은 완전한 증후군 수준으로 발전되기 전의 경계 범위에 해당되는 정신 병리를 나타내며 임상집단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 군으로 볼 수 있다(홍상환, 김영환, 1998).

Morey(1991)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87-.91

로 나타났고 국내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보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을 알아보았다. 또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애착유형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검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CFI, TLI, RMSEA 값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89). 그리고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 변인인 아동기외상과 애착유형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주요 변인들의 상관행렬과 기술 통계치
아동기 외상, 애착유형, 경계선 성격특성의

표 1. 측정 변수 간의 상관행렬표 및 기술 통계치(N=5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아동기 외상 총점	-											
2. 신체적	.78***	-										
3. 정적	.45***	.27***	-									
4. 정서적	.82***	.62***	.28***	-								
5. 애착유형 총점	.43***	.25***	.20***	.40***	-							
6. 회피형	.31***	.14**	.12**	.32***	.81***	-						
7. 불안형	.40**	.27**	.22**	.35**	.85**	.38**	-					
8. 경계선 성격총점	.42***	.29***	.20***	.36***	.68***	.39***	.72***	-				
9. 정서적 불안정성	.32***	.22***	.16***	.27***	.57***	.36***	.57***	.85***	-			
10. 정체감 문제	.30***	.18***	.14**	.23***	.60***	.32***	.67***	.86***	.66***	-		
11. 부정적 대인관계	.42***	.28***	.21***	.38***	.68***	.45***	.67***	.82***	.62***	.62***	-	
12. 자기 손상	.33***	.25***	.13**	.29***	.35***	.13**	.43***	.73***	.46***	.49***	.43***	-
평균	24.37	3.41	1.00	5.34	6.79	3.77	3.03	22.67	6.06	6.22	6.12	4.27
표준 편차	14.96	3.12	1.49	3.86	1.58	.90	1.00	9.42	2.96	2.97	2.83	2.82

** $p < .01$, *** $p < .001$.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호상관행렬을 추정 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 총점은 애착유형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며($r=.43, p < .01$), 아동기 외상의 하위 요인들과 애착유형 하위 요인들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 총점은 경계선 성격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며($r=.42, p < .01$), 아동기 외상 하위요인들과 경계선 성격 하위 요인들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착유형 총점은 경계선 성격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며($r=.68, p < .01$), 애착유형 하위 요인들과 경계선 성격 하위 요인들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증모델인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19.0의 다변인 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 하의 8개 지표 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 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의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회피형 애착유형의 매개 효과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

서 회피형 애착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을 회피형 애착유형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초기 모델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CFI=.92,는 .90이상의 값이 나타나 양호하였으나 RMSEA가 .10, TLI는 .88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이론적 기준에 따라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회피형 애착유형이 부분 매개하도록 모형을 수정하여 초기 모델과 수정 모델 간의 차이 검증을 실시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모델에서 경로를 하나 더 추가한 수정 모델의 카이제곱값 CMIN이 36.25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소된 CMIN=36.25의 통계

표 2. 회피형 애착유형 모델 비교

모델	df _b	χ^2_b	p
초기			
수정	1	36.25	.000

p < .05.

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이러한 정도의 CMIN값을 표집의 오차에 의해 우연히 얻을 확률이 p=.000으로서 유의수준 $\alpha = .01$ 로 정할 경우 p<.01로서 수정 모델의 부합도가 초기모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모델과 수정 모델 간의 부합도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수정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CFI=.95, TLI=.92로 모두 .90이상의 값이 나타나서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고, RMSEA도 .08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최종 모델로 부분매개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는 아동기외상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회피형 애착유형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분매개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은 부분매개모형으로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회피형 애착유형이 부분 매개하는 경로이다. 최종 구조회기모델의 전체 효과, 직·간접 효과의 모수치

표 3. 회피형 애착유형의 모형검증 부합도 지수 비교

모형	DF	CMIN	NC	TLI	CFI	RMSEA
1. 초기모델-완전매개 모형	19	122.42	6.44	.88	.92	.10
2. 수정모델-부분매개 모형	18	86.17	4.79	.92	.95	.08

표 4. 회피형 애착유형의 부분매개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아동기 외상 → 경계선 성격특성	.20	.04	5.58	***	.31
아동기 외상 → 회피형 애착유형	.09	.01	6.37	***	.33
회피형 애착유형 → 경계선 성격특성	.86	.12	7.31	***	.3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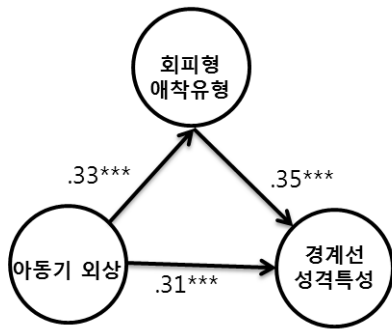


그림 1. 회피형 애착유형의 부분매개 모형

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외상이 회피형 애착유형에 직접효과(.3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외상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효과(.43)중에서 직접효과(.31)와 간접효과(.1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피형 애착유형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접효과(.3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에서 불안형 애착유형의 매개 효과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불안형 애착유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을 불

안형 애착유형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초기모델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CFI=.96, TLI=.94로 .90이상의 값이 나타나 양호하며, RMSEA는 .08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론적 기초에 따라서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불안형 애착유형이 부분 매개하도록 모형을 수정하여 초기 모델과 수정 모델 간의 차이 검증을 실시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모델에서 경로를 하나 더 추가한 수정 모델의 카이제곱값 CMIN이 12.69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소된 CMIN=12.69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이러한 정도의 CMIN값을 표집의 오차에 의해 우연히 얻을 확률이 $p=.000$ 으로서 유의수준 $\alpha = .01$ 로 정할 경우 $p<.01$ 로서 수정 모델의 부합도가 초기모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모델과 수정

표 6. 불안형 애착유형 모델 비교

모델	df ₀	χ^2_{D}	p
초기	1	12.69	.000
수정			

$p < .05$.

표 5. 아동기 외상, 회피형 애착유형,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직·간접 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아동기외상 → 경계선 성격특성	.28**	.20**	.08**	.43**	.31**	.12**
아동기외상 → 회피형 애착유형	.09**	.09**	.00	.33**	.33**	.00
회피형 애착유형 → 경계선 성격특성	.86**	.86**	.00	.35**	.35**	.00

** $p < .01$.

표 7. 불안형 애착유형의 모형검증 부합도 지수 비교

모형	DF	CIMN	NC	TLI	CFI	RMSEA
1. 초기모델-완전매개 모형	19	78.87	4.15	.94	.96	.08
2. 수정모델-부분매개 모형	18	66.18	3.68	.95	.97	.07

표 8. 불안형 애착유형의 부분매개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아동기 외상 → 경계선 성격특성	.10	.03	3.53	***	.15
아동기 외상 → 불안형 애착유형	.12	.02	7.50	***	.40
불안형 애착유형 → 경계선 성격특성	1.67	.10	17.24	***	.74

*** $p < .001$.

모델 간의 부합도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7 과 같이 나타났다. 수정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CFI=.97, TLI=.95로 나타났으며, RMSEA도 .07로 완전매개 모형보다 더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최종 모델로 부분매개 모형을 채택하였다.

아동기외상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형 애착유형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분매개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그림 2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아동기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불안형 애착

유형이 부분 매개하는 경로이다. 최종 구조회기모델의 전체 효과, 직·간접 효과의 모수치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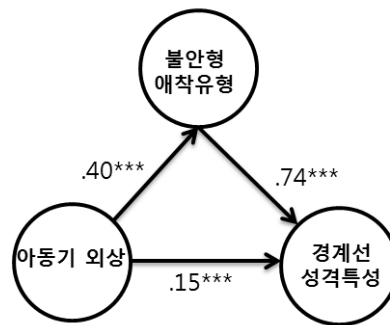


그림 2. 불안형 애착유형의 부분매개 모형

표 9. 아동기 외상, 불안형 애착유형,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직·간접 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아동기외상 → 경계선 성격특성	.31**	.10**	.21**	.44**	.15**	.30**
아동기외상 → 불안형 애착유형	.12**	.12**	.00	.40**	.40**	.00
불안형 애착유형 → 경계선 성격특성	1.67**	1.67**	.00	.74**	.74**	.00

** $p < .01$.

는 표 9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외상이 불안형 애착유형에 직접효과(.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외상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효과(.44)중에서 직접효과(.15)와 간접효과(.3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형 애착유형은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접효과(.7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애착 불안정성,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불안형 애착유형, 회피형 애착유형이라는 두 가지 애착 불안정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초기 아동기 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Helgeland & Torgersen, 2004; Sansone, Songer, & Miller, 2005). 또한 아동기 외상과 애착 불안정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 외상은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유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주요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Baer & Martinez, 2006).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유형 역시 경계선 성격특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

였는데, 애착유형과 경계선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 연구에서 두려움 애착유형에 속하는 불안형 애착과 관계 회피가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arone, Fossati, & Guiducci, 201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아동기 외상 정도, 애착 불안정성, 경계선 성격특성이 상호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간의 관계에서 애착 불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들을 비교하고 최적의 적합도를 가진 모형을 채택하였다. 두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애착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회피형 애착과 불안형 애착이 각각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을 부분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선행 연구 결과 불안형 애착은 경계선 성향과 일관성있게 관련이 있는 반면, 회피형 애착과 경계선 성향의 관련성은 일관성이 없어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의 매개 효과를 따로 상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 모두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향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불안형, 회피형과 같은 불안정 애착유형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초기 아동기 외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회피형 애착과 불안형 애착을 많이 보이고 이러한 애착 불안정성은 결국 대인관계 불안정성과 충동성, 정서적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기 외상이 애착 불안정성과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임상장면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고 아동기 외상과 애착 불안정,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간의 관계 등 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의한 연구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과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이 애착 불안정을 매개로 경계선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해 아동기 외상이 회피형 애착, 불안형 애착을 매개로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이들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시켰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애착 측정치들 중에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신뢰롭다고 알려진 ECR-R을 사용하여 아동기 외상과 경계선 성격과의 관계에서 이들 회피형 애착과 불안형 애착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즉, 아동기 외상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을 형성하게 되어 이것이 경계선 성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려움 애착유형, 즉 애착 불안과 관계적 회피 경향성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되며(Gunderson & Lyons-Ruth, 2008; Fonagy & Luyten, 2009)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나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초기 외상에서 비롯된 애착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 정신화(mentalization)이

다(Bateman & Fonagy, 2004; Choi-Kain & Gunderson, 2008). 정신화란 기저의 정신 상태에 비추어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읽거나 해석하는 능력이다(Fonagy, 1991). Fonagy(1991)는 아동기에 충분한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해 불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정신화 능력의 부재로 이어지며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증상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장애를 위한 정신화 기반 심리치료에서는 환자로 하여금 정신화를 촉진하고 안정 애착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Wallin, 2007).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본 연구는 Fonagy와 그 동료들이(Bateman & Fonagy, 2004; Bateman & Fonagy, 2008; Choi-Kain & Gunderson, 2008; Fonagy, 1991; Fonagy & Luyten, 2009) 주장한 가설, 즉 애착과 정신화 결합이 외상과 경계선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경계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애착을 안정화시켜주고 정신화 능력을 촉진시키는 치료적 개입을 한다면 경계선 성격 특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졌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시도로 인해 반응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계선 성격특성이나 애착은 현 시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아동기 외상에 대한 평가는 과거 아동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기억편향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

이 있다. 특히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와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어 거짓되거나 왜곡된 지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 외상 경험을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정교한 면담이나 경찰 조사 기록, 법정 기록 등 아동기 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사이버대학교 재학 중인 성인 여자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성이 주요 피험자인 본 연구 결과를 전 연령대와 남성을 포함한 일반 인구 집단, 그리고 임상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표집대상을 다양화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초기 아동기 외상, 애착, 경계선 성격을 횡단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시기에 측정하였으므로 시간적 변화에 따라 각각의 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상정한 매개 모델은 아동기 외상이 애착에 선행한다는 조건을 가정하고 있지만 역으로 특정 애착 유형이 외상 사건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예컨대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과거 친밀한 관계 경험을 왜곡시켜 지각하는 방식이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격 병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이 경계선 성격 병리를 촉진시켰는지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설계를 사용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요인은 살펴보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능한 매개 변수는 반응 민감성(Luterek, Harb, Heimberg, & Marx, 2004; Maciejewski & Mazure, 2006), 대인 관계(Whiffen, Thompson, & Aube, 2000), 불우한 가정환경(Bradley, Jenci, & Westen, 2005), 미숙한 방어기제(Finzi-Dottan & Karu, 2006), 고통에 대한 내성(Brown, Lejuez, Kahler, & Strong, 2002) 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잠정적인 매개 변수를 가능한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복합 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임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 결과는 경계선 성격 치료 시 아동기 외상과 애착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의 세대 간 전이와 관련된 유전 및 환경의 독특한 기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기 역경이나 외상이 발달적인 시기와 특정 경계선 성격과의 구체적인 관련성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경계선 성격과 아동기 학대라는 과거력은 경계선 성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Tyrka, Wyche, Kelly, Price와 Carpenter(2009)는 아동기 학대 경험은 광범위한 성격 결함의 비특이적 위험 요인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계선 성격 외에도 다른 성격병리와 아동기 외상의 관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아동기 외상은 비임상과 임상 집단 모두에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아동기 외상 유형과 경계선 성향의 관련성에 대해 지역사회 인구 집단과 임상 집단에 교차 타당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 외상 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95-271.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er, J. C., & Martinez, C. D. (2006). Child maltreatment and insecure attach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4, 187-197.
- Bandelow, B., Krause, J., Wedekind, D., Hajak, G., & Ruther, E. (2003). Early traumatic life events, parental attitudes, family history, and birth risk factors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healthy controls. *Psychiatry Research*, 135, 169-179.
- Barone, L. (2003). Developmental protective and risk factor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tudy using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5(1), 64-77.
- Barone, L., Borellini, C., Madeddu, F., & Maffei, C. (2000). Attachment, alcohol abuse and personality disorders: A pilot study using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lcologia*, 12(1), 17-24.
- Barone, L., Fossati, A., & Guiducci, V. (2011). Attachment mental states and inferred pathways of development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tudy using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3(5), 451-469.
- Bateman, A. W., & Fonagy, P. (2004).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of BP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 36-51.
- Bateman, A. W., & Fonagy, P. (2008). 8-year follow-up patients treated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versus treatment as usual.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 631-638.
- Bradley, R., Jenei, J., & Westen, D. (2005). Eti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isentangling the contributions of intercorrelated anteced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3, 24-31.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Simpson, A. & Roholes, W. A.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Briere, J. (1996). A self trauma model for treating adult survivors of severe child abuse. In J. Briere, L. Berliner, J. A. Bulkley, C. Jenny & T. Reid (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pp.140-157).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 R. A., Lejuez, C. W., Kahler, C. W., & Strong, D. R. (2002). Distress Tolerance and Duration of Past Smoking Cessation Attemp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180-185.
- Browne, M. W., & Cudeck, R. (1989). Single sample cross-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4, 445-455.
- Browne, C., & Winkelman, C. (2007). The effect of childhood trauma on later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 684-697.
- Choi-Kain, L. W., & Gunderson, J. G.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 1127-1135.
- Crick, N. R., Murray-Close, D., & Woods, K. (2005).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in childhood: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7(4), 1051-1070.
- Diamond, D., Stovall-McClough, K. C., Clarkin, J. R., & Levy, K. N. (2003). Parent-therapist attachment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7, 227-259.
- Finzi-dottan, R., & Karu, T. (2006). From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to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a path mediated by immature defense mechanisms and self-esteem.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4, 616-621.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 639-656.
- Fonagy, P., & Luyten, P. (2009). A developmental,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8, 350-365.
- Fraley, R. C. (2002). Attachment stability from infancy to adulthood: meta-analysis and dynamic modeling of developmental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 123-151.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rant, B. F., Chou, S. P., Goldstein, R. B., Huang, B., Stinson, F. S., Saha, T. D., & Ruan, W. J. (2008). Prevalence, correlates, disability, and comorbidity of DSM-IV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Results from the Wave 2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 533-545.
- Gunderson, J. G., & Sabo, A. N. (1993). The phenomenological and conceptual interface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PTS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19-27.
- Gunderson, J. G., & Lyons-Ruth, K. (2008). BPD's international hypersensitivity phenotype: A gene-environment development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1), 1-22.
- Hankin, B. L. (2006). Childhood maltreatment and psychopathology: Prospective tests of attachment, cognitive vulnerability, and stress as mediating process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 645-671.
- Helgeland, M. I., & Torgersen, S. (2004).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45, 138-147.

- Johnson, J. G. Cohen, P., Smailes, E. M., Skodol, A. E., Brown, J., & Oldham, J. M. (2001). Childhood verbal abuse and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Comprehensive Psychiatry*, 42, 16-23.
- Kolk, B. A. (1996).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Self-regulation, stimul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ological development*. In Van der Kolk, B. A., McRarlane, A. C., & Weisaeth, L. (Eds.) *Traumatic stress: the effect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pp. 182-213). New York: Guilford Press.
- Korzekwa, M. O., Dell, P. F., Links, P. S., Thabane, L., & Webb, S. P. (2008).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psychiatric outpatients using a two-phase procedure. *Comprehensive Psychiatry*, 49(4), 380-386.
- Lenzenweger, M. F., Lane, M. C., Loranger, A. W., & Kessler, R. C. (2007). DSM-IV personality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Biological Psychiatry*, 62, 553-564.
- Levy, K. N. (2005). The im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for understand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959-986.
- Luterek, J. A., Harb, G. C., Heimberg, R. G., & Marx, B. P. (2004). Interpersonal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Mediator of depressive symptoms and anger supp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90-107.
- Lyons-Ruth, K. (2003). Dissociation and the parent-infant dialogue: A longitudinal perspective from attachment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al Association*, 51, 883-911.
- Lyons-Ruth, K., Melnick, S., Patrick, M., & Hobson, R. P. (2007). A controlled study of Hostile - Helpless states of mind among borderline and dysthymic wome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9(1), 1-16.
- Maciejewski, P. K., & Mazure, C. M. (2006). Fear of criticism and rejection mediates an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adult onset of maj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105-122.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atrick, M., Hobson, P., Castle, P., Howard, R., & Maughan, B. (1994).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early social exper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375-388.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244-253.
- Sansone, R. A., Songer, D. A., & Miller, K. A. (2005). Childhood abuse, mental healthcare utilization, self-harm behavior, and multiple psychiatric diagnosis among inpatients with a borderline diagnosis. *Comprehensive Psychiatry*, 46, 117-120.
- Sibley, C. G., & Liu, J. H. (2004). Short-term temporal st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revised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ECR-R) measure of adult attachment. *Personality*

-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4), 969-975.
- Stalker, C. A., & Davies, R. (1995). Attachment organization and adaptation in sexually abused women.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0(5), 234-240.
- Stuewig, J., & McCloskey, L. A. (2005). The relation of child maltreatment to shame and guilt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routes to depression and delinquency. *Child Maltreatment*, 10, 324-336.
- Tyrka, A. P., Wyche, M. C., Kelly, M. M., Price, L. H., & Carpenter, L. L. (2009).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nfluence of maltreatment type. *Psychiatry Research*, 165, 281-287.
- Wallin, 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dford Press.
- Weiss, M., Zerkowitz, P., Feldman, R. B., Vogel, J., Heyman, M., & Paris, J. (1996).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of mother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ilot stud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1, 285-290.
- Whiffen, V., Thompson, J. M., & Aube, J. A. (2000).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childhood sexual abuse and adul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 1100-1120.
- Zanarini, M. C., Williams, A. A., Lewis, R. E., Reich, R. B., Vera, S. C., Marino, M. R., Levin, A., Yong, L., & Frankenburg, F. R. (1997). Reported pathological childhood experience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1101-1106.
- 원고접수일 : 2013. 03. 02.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4. 13.
게재결정일 : 2013. 04. 30.

The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insec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Woo Kyeong Le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Eun Sil Choi

Department of Psychotherapy
Kyung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attachment insec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Subjects included 504 cyber university femal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ECR-R), and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traum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attachment insecur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Second,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pported the proposed mediation model. The results support a link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support the hypothesis that ECR-Avoidance and ECR-Anxiety partially mediates this relationshi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addition to the direct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ere are also indirect effects that are mediated by attachment insecur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Childhood trauma, avoid attachment, anxious attachment,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